



비교 방법론

비교 논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특수적인 경우로는 연세대의 삼자비교, 성균관대의 제시문을 나누는 비교(요약에 가깝습니다만) 등, 여러 학교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 방법론은 비판 논제 해결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교는 주로 제시문들을 이용하여 이루어집니다. 비교 기준은 주어진 때도 있지만 제시문들을 분석해가며 비교 기준을 찾아야할 때도 있습니다. 각 비교 항목끼리의 차이점 분석이 주를 이루지만 때로는 공통점을 찾는 논제도 출제됩니다.

일반적 비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대분류 도출

논술의 비교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통점과 차이점의 서술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비교 기준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시문들을 크게 나누는 기준을 대분류라고 합니다. 대분류는 논제에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분류가 겹으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이를 직접 찾아야 하는 경우죠. 이 때, 대분류를 찾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제시문의 독해가 필수적입니다. 대상을 모두 독해한 다음, 그들의 공통 화제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비교는 공통 화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지녔을 때에 가능한 것임을 생각해보신다면 간단합니다.

●●● 표 사용하기

이제 제시문의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비교 기준을 제시하고 차이점을 도출할 차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표를 그려 제시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를 사용했을 경우에 차이점들을 명료하게 알아보기 쉽고, 표의 각 항목에 문장마다의 핵심어가 제시되어 있기에 나중에 문장 개요를 작성할 수고를 덜어줍니다. 무엇보다도, 비교 기준을 도출할 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	(나)
공통점		
주장		
근거		

표에 반드시 적어야 할 것은 일단 맨 위의 공통점 항목, 그리고 결론과 전제 항목입니다. 이 셋은 가장 기본적인 비교이며 나중에 비판이나 견해제시 논제에서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공통점은 차이점을 서술하라는 논제에서도 반드시 작성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통점을 딱히 찾을 수 없다면 대분류를 적어주시고, 대분류에 대해 제시문들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 공통점은 차이점을 부각시켜줄 뿐더러, 우리가 제시문을 어떤 것에 집중하여 봐야하는지를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주장 항목은 언제나 대분류에 대한 주장입니다. 만일 '낭비'가 대분류라면, 제시문들과 '낭비'라는 키워드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 제시문에서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근거 항목에는 대분류에 대한 주장이 제시문의 어떤 부분을 통해 나오게 되었는지를 제시문에서 찾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소분류를 도출할 차례입니다. 소분류들을 찾는 것은 전적으로 비교 대상인 제시문들의 독해

에 의존합니다. 방금 표에서 간략히 정리해둔 공통점, 주장과 전제를 통해서, 그리고 제시문의 세부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 비교 기준을 발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차이점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인문논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 요소 중 하나는 사고의 다각화입니다. 비교에서 사고의 다각화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여러 기준을 제시하여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에 더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확성입니다. 아무리 많은 차이점들을 보여준다고 한들, 제시문의 내용과 모순이 있는 내용이라면 안 쓰느니만도 못한 것들입니다.

사고의 정확성 측면과 다각적 측면을 모두 만족시키는 세부 기준 도출 방법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방법들에 모두 숙련되어야 합니다.

●●● 정보 정리의 도구 활용

표의 내용은 당연히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채워야 합니다. 독해 방법을 소개해드리면서 '정보 정리'의 도구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는 제시문들을 각자 정보 정리의 도구를 활용해 내용을 정리하시고, 정리된 내용에서 각자 제시문에 서술하고 있는 동일 대상에 대한 속성을 찾아 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찾아낸 속성들을 대립될만한 단어로 고쳐서 써보는 것입니다. 또한 찾아낸 차이점들을 포괄할 수 있는 말을 찾아내고, 그것을 비교 기준의 이름으로 설정하세요.

이미 만들어진(ready-made) 비교의 틀로 제시문의 내용을 재단하는 것은 사후적 해설에 가깝습니다. 이런 방식의 비교를 시도한다면 우리의 사고를 제한시킬 가능성이 더 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사고는 제시문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 반대 추론

만일 제시문 (가)의 세부사항인 A항이 a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이 제시문 내에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만 제시문 (나)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 a라는 속성을 반대로 뒤집어보며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방법은 반대추론을 활용한 것입니다. 논제에서 제시문 간 비교를 요구할 때엔 그들의 차이점이 존재하고, 그 차이점들은 반대된다는 속성을 지닌다는 것에서 착안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결점이 존재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오랜 친구다. 하지만 남자인 철수는 군대에 가야하기 때문에 2년동안 영희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제가 만든 위 문장에서 철수와 영희를 비교한다고 해봅시다. 철수는 남자이며, 군대에 가야한다고 합니다. 영희는? 단순히 반대추론만을 사용한다면 영희는 여자이며, 군대를 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영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제시문을 통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희가 남자인데도 군대를 가지 못하거나, 남자라서 같이 군대를 가야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희가 그저 고양이 이름인지,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글에 나타난 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철수와 영희가 오랜 친구라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반대추론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면적 사고라는 측면을 채워줄 순 있습니다만, 정확성 측면에서는 과연 얼마나 옳을 것인가는 생각해볼만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확인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시문과 찾아낸 속성간의 정합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합성 판단은 크게 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반대 추론을 통해 찾아낸 내용을 제시문에 대입해보고, 제시문의 내용과 모순이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들었던 예시를 살펴봅시다.

철수와 영희는 오랜 친구다. 하지만 남자인 철수는 군대에 가기 때문에 2년동안 영희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 예시에서 철수와 영희를 비교한다고 하면, 반대 추론을 사용해서 영희가 여자이며, 군대를 가지 않는다고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위 예시에 집어넣어도 딱히 큰 모순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방식의 반대 추론은 잘못되었습니다.

정합성 판단의 두번째 방식을 사용하면 이 예시가 왜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방법은 '반대 추론을 사용하기 위해 이용한 단서를 그대로 대입해보기'입니다. 이 예시의 경우에는 반대추론을 사용하기 위해 이용한 단서인 "남자인 철수는 군대에 가야하기 때문에" 라는 부분을 영희의 속성에도 그대로 대입해보는 것입니다. 영희가 남자이고, 군대에 간다고 했을 때, 위 예시는 성립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단서를 넣었을 때 성립한다면 이용한 단서와 반대 추론을 통해 찾아낸 내용이 둘 다 참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여자이면서 남자일 수는 없고, 군대에 가면서 군대에 가지 않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 방법의 정합성 판단을 고루 활용하셔야 동일 항목 간의 추론에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추후에 '비판의 확장' 파트에서 더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 정의의 활용

B항목에 대한 제시문 (가)의 b 내용과 (나)의 b'가 다르긴 하지만, 그에 대한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을 때

가 있습니다. 이럴 땐 각 내용들의 정의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가치, 이유, 조건, 양상을 각각 비교해줍니다. 차이점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동시에 다각적인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가)	(나)	(다)
문제 해결 방법	설득	강제	합의

제시문 독해를 통해 발견해낸 것들로 위와 같이 만들어진 표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이들은 완벽하게 차이점이 되진 않습니다. 설득은 강제의 완벽한 반대가 아니고, 합의는 강제의 완벽한 반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설득과 합의는 어딘가 닮아있지만 사실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상의 차이점을 명료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의의 활용입니다.

먼저, 모호한 대상들의 정의를 내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금 전의 표에서 제시문 (가)의 문제 해결 방법인 설득, (나)의 강제, (다)의 합의 항목에 대해 하나씩 정의를 내려보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의를 내릴 때엔 항상 제시문에 근거하셔야 합니다. 허나, 이곳에 해당 제시문의 전문을 싣기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시문 없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에서 유개념 부분에 속하는 가치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 강제, 합의는 모두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 의 존재 이유는 셋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로 살펴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가)	(나)	(다)
문제 해결 방법	설득	강제	합의
가치/이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가치와 이유를 찾아봤으니 조건과 양상을 찾아낼 차례입니다. 제시문에 나온 내용이지만, 설득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지만 강제와 합의랑은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설득은 한 주체가 다른 주체와 대화하여 다른 주체로 하여금 양보를 받아냅니다. 여기에서는 한 주체의 의견으로 문제가 해결되며, 다른 주체의 의견은 양보됩니다. 즉, 일방향적인 양보가 드러납니다. 합의는 그것과는 다르게 양방향적인 양보가 필요합니다. 강제는 일방향적이긴 하나, 그 과정에서 양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양보의 반대인 강압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표를 다음처럼 완성시킬 수 있을 겁니다.

	(가)	(나)	(다)
문제 해결 방법	설득	강제	합의
가치/이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조건/양상	일방향적 양보	일방향적 강압	양방향적 양보

여기에서 조건과 양상을 더 찾을 수도 있고, 비교 기준의 이름을 바꿔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거기까지 나아가진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례들은 앞으로 비교 논제를 풀이하시면서 마주치게 되실 겁니다.

●●● 대립/대칭어의 사용

표에 넣을 말이 너무 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엔 해당 내용을 한 단어 혹은 몇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을 바꿔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핵심어는 변해선 안 되며, 내용의 왜곡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 또한 변환된 단어가 대비되는 다른 단어가 있는 경우면 더 좋습니다. '개인'이라는 단어가 '집단' 혹은 '공동체' 라는 단어와 대비되듯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찾은 내용이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 이라면 이를 '개인주의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고,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이라면 이를 '공동체주의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평소에 외우고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런 대립/대칭어를 암기하여 무조건적으로 제시문에 대입하려 한다면 내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대칭어로 제시문을 바라볼 게 아니라, 각각의 제시문에서 대칭어를 뽑아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 논리적 순서 반영

표의 내용이나 빈칸을 필요한 만큼 채우셨다면 마지막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표의 항목에 논리적 순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표의 항목 중에서 공통점, 주장, 근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논리적 순서를 부여하는 대상은 세부적인 비교 기준들입니다. 만일 한 항목에 차이점의 세분화 방식을 사용하여 기준을 늘렸다면, 해당 항목을 앞에 둔 다음, 그것의 가치와 이유, 조건과 양상 순으로 나열하라는 겁니다. 해당 세부 항목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사고 방식을 표에 드러내줘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이후에 제시문을 서술할 때 비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논리적 관계를 나중에 다시 생각해야하니, 시간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 구체적 서술 방법

표에 논리적 순서까지 반영하여 표를 완성했다면 이제 표를 글로 옮길 차례입니다. 비교 논제에서는 표만 제대로 완성했다면 따로 개요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표가 곧 개요가 됩니다. 작성한 비교의 표는 우리가 서술해야 할 문장 단위로 핵심어를 담고 있습니다. 표가 개요의 역할을 하는 만큼, 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표의 내용과 제시문의 내용이 합치하는지, 표 내부에서 동일 항목 간의 속성들이 잘 배열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표를 어떻게 글로 옮기는가?' 입니다.

	(가)	(나)
공통점		
주장		
근거		
A	a	a'
B	b	b'
...		

위의 표를 개요로 삼아 답안지에 글로 옮긴다면 두 방법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는 표를 가로로 활용하여 항목별로 답안을 구성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표를 세로로 활용하여 제시문 별로 답안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항목별 구성 방법부터 알아봅시다.

“(가)와 (나)는 이러한 공통점을 갖는다
 (가)의 주장과 근거는 ~이고 (나)의 주장과 근거는 ~이다.
 기준 A에 대해 (가)는 a한 입장이고, B는 a'한 입장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항목에 대한 속성이 제시문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 항목끼리의 논리적 연결성을 확보하기 힘들어서, 하나의 글이라기보단 단순한 정보의 나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시문별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시문이 가진 항목의 내용들을 쭉 서술하는 방법입니다.

“(가)와 (나)는 이러한 공통점을 갖는다.
 (가)는 ~ 주장이며, ~한 근거를 갖는다....세부항목 A,B,C...
 한편 (나)는 ~ 주장이며, ~한 근거를 갖는다....세부항목 A,B,C”

어찌 보면 두 제시문의 요약을 나열해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비교 기준이 늘어나더라도 문단 바꿈을 제시문의 개수만큼 하여 정리되고 깔끔한 답안을 얻을 수 있단 겁니다. 또한 항목 간 논리적 연결성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비교 기준(항목)들의 순서를 동일하게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요약문이 되며 비교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가)와는 달리”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표를 그대로 옮기면서 단순히 항목들을 나열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항목들이 제시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해당 항목들이 제시문에서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서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는 A항목에 대해 ~한다는 점으로 보아 a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와 같이 말이지요.

비교 방법론 예시

비교 논제의 풀이를 위해서는 제시문을 독해하고, 비교 표를 작성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제 기출의 해설을 통해 독해와 비교의 방법론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 연세대학교 논제의 비교 문항은 쉬운 편에 속합니다.

반면, 2012 연세대학교 논제의 비교 문항은 아주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두 논제 간 난이도 차이의 원인은 논제의 모호성과 제시문 자체의 난이도입니다. 이 두 요소가 각각의 논제에서 비교 방법론의 활용에서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2018학년도 시험의 경우엔 간단한 제시문 정리만으로도 비교 논제 풀이를 위한 표를 작성해낼 수 있지만, 2012학년도의 시험에서는 표를 작성하기 위해 여러 추론을 활용해야만 합니다.

각 문제의 해설을 보시기 전에, 먼저 문제들을 간단하게라도 풀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문제 1〉 근대와 근대 이전에 나타난 ‘신용’과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는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분석하시오.

2018 연세대학교 인문 변형

제시문 (가)

유럽에서 경제와 사회의 발전과정은 믿음의 발전과정이다. 믿음은 시장의 탄생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믿음은 모든 시장 경제의 기본이 되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왜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함으로써, 대규모 상업 거래의 토대가 되었다. 유럽에서 경제 행위가 시작되던 시기에, 곧 상인들이 이 도시 저 도시로 옮겨 다니거나 유럽의 큰 강줄기를 따라 형성되었던 장터에서 서로 만나곤 했을 당시에는, 아직 사법 체계와 재판 절차, 제재 규정이 취약했고, 실제로 있지도 않은 곳도 많았다. 하지만 당시의 복잡하고 위험하며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상거래에서는 진정 상대방을 신뢰해야 했다. 상대방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 제대로 상품을 보낼 것이라는 신뢰에 바탕을 둔 신용이야말로 공유하고 있는 믿음이 주는 중요한 보증이었다.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그 상대방도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유럽에서는 상대방도 나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고 그 믿음에 충실한 사람이기에, 나도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뢰로 인해 유럽은 공동체를 형성했고, 교역은 새로운 형태의 우애가 되었다. 유럽이라는 공동체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졌고 훨씬 더 많은 시장이 생김으로 인해 상품의 양이 늘어났고 상업적, 사회문화적, 종교적 만남도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다. 믿음은 신뢰를 낳았고, 신뢰에 바탕을 둔 신용이 시장과 부를 낳았다.

이러한 믿음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자산이었다. 예컨대 화폐, 담보, 은행이 존재했더라도 니콜로라는 사람이 미구엘이라는 사람을 신뢰했고 그 신뢰에 바탕을 둔 신용 덕분에 거래가 성사되곤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경험은 악용될 수도 있는 위험이 따르기에 내재적으로 취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점 때문에 인간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근대에 들어서 이런 믿음이 파괴되었을 때 자본주의가 생겨났다. 자본주의는 점차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에 의해 구현되는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 냈다. 유럽은 이런 새로운 믿음에 바탕을 두는 자본주의에 의해 재건되었다. 하지만 이는 근대 이전의 믿음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근대에 만들어진 새로운 자본주의적 믿음은 더 이상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신뢰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경제적 관계에서 인격적 관계의 중요성이 경시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적 신뢰가 빠진 신용이 점차 확대되어 성장률을 낮추고 심지어 경제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경제 위기를 부른 원인의 상당 부분은, 신뢰라는 인간관계와는 너무도 동떨어지고 무관한 금융 제도를 구축했던 데에 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시스템을 따르는 은행이라면 곤경에 처한 건실한 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인간적인 신뢰도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 간의 만남도 없이 그저 컴퓨터 시스템에서 나온 대출심사 결과 수치에만 의존하며, 이로써 비인간적인 방식이 되고 만다.

우리 시대의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서로 만나야 하고, 사람들을 신뢰해야 하며 그들의 취약성까지도 신뢰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와 금융 거래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대면하는 만남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이 같은 거래는 비인간적이 되어버리기 때

문이다. 오늘날 우리 각자가 자기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차원에서 믿음을 다시 찾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묘책이나 통치 체제도 진정 우리를 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제시문 (나)

근대 경제사를 알기 위해서 정말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다. 성장이란 단어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근대 경제는 마치 호르몬이 넘쳐나는 십대처럼 성장해왔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경제는 대체로 같은 규모를 유지해왔다. 물론 지구 총생산은 증가했지만, 이것은 대체로 인구 팽창과 정착지의 확대 덕분이었다. 1인당 생산은 정체 상태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근대에 와서 바뀌었다. 서기 1500년 재화와 용역의 지구 총생산은 약 2,050억 달러였는데, 오늘날 이 수치는 60조 달러까지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기 1500년 연간 1인당 총생산은 550달러였지만 오늘날 모든 남녀와 어린이가 1인당 연평균 8,800달러를 생산한다는 점이다.

근대 이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성장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다. 왕자, 성직자, 농부 모두 인간의 생산은 일정하고, 부자가 되는 길은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들의 손자들도 더 나은 생활수준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경제적 정체의 큰 원인은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이유는 근대 이전에는 신용 거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신용거래가 거의 없었던 이유는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성장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경제가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근대에 이르러 은행—그리고 경제 전체—을 살아남게 하고 꽃피게 만드는 것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신뢰다. 오로지 이 신뢰가 세계의 돈 대부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돈은 무수히 많은 것들을 대표할 수 있고 무엇이든 다른 거의 모든 것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다. 하지만 근대 이전에는 이 능력이 제한적이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제한된 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결과 경제는 얼어붙어 있었다. 이 한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발견되었다. 미래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한 것이다. 이 시스템 내에서 사람들은 상상 속의 재화를 신용이라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돈으로 대체하게 하는 데 동의했다. 신용은 미래를 비용으로 삼아 현재를 건설할 수 있게 해준다. 신용은 우리의 미래 자원이 현재 자원보다 훨씬 더 풍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한다. 만일 우리가 미래의 수입을 이용해서 현재에 무엇을 건설할 수 있다면 새롭고 놀라운 기회가 수없이 많이 열린다. 근대 이후 진보라는 아이디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점점 더 신뢰하게 만들었다. 신뢰는 신용을 창조했고, 신용은 경제를 성장시켰으며, 성장은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더 많은 신용을 향한 길을 열었다.

●●● 제시문 독해

(가) – 신용과 신뢰 사이의 관계 (근대 이전)

주체 – 사람

양상 –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용이 발생

배경 – 공통된 믿음(신앙/종교)이 존재

결과 – 유럽 공동체의 확대, 시장과 부의 생성…(긍정적 결과)

영향 요소 – 인간 관계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기에 악용될 수도 있음

(가)를 근대 이전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이러합니다. 주체는 당연히 사람입니다. 굳이 더 구체적으로 잡자면 유럽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허나, 이건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이 글에서 나타난 행위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먼저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행위는 ‘신용과 신뢰 사이의 관계’와 연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제시문에서 ‘신뢰와 신용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 제대로 상품을 보낼 것이라는 신뢰에 바탕을 둔 신용이야말로 공유하고 있는 믿음이 주는 중요한 보증이었다.”

이 문장을 통해 “신뢰에 바탕을 둔 신용”이라는 관계성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성이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은 그 다음 문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그 상대편도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유럽에서는 상대편도 나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고 그 믿음에 충실한 사람이기에, 나도 상대편을 신뢰할 수 있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나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진술이 다음 문단에서 등장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자산이었다.”

즉, 이런 공통된 믿음은 인간관계의 자산이 되어 신뢰를 형성하고, 신용 거래를 이루어지도록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종합한 문장이 첫번째 문단의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믿음은 신뢰를 낳았고, 신뢰에 바탕을 둔 신용이 시장과 부를 낳았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여 ‘시장과 부의 생성’이라고 적어줍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긍정적 결과’라고 써주셔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신뢰와 신용 간의 관계를 촉진시킬 요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험은 악용될 수도 있는 위험이 따르기에 내재적으로 취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점 때문에 인간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내재적으로 취약할 수 있지만, 이를 인간적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굳이 이를 이야기하자면 신뢰가 신용을 만들어내는 걸 방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방해 요소로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향 요소 항목에 ‘악용될 수 있음’이라 적어줍니다.

근대 이전을 정리했으니, 이제 근대를 정리할 차례입니다.

(가) - 신용과 신뢰의 관계 (근대)

주체 - 사람

배경 - 새로운 자본주의적 믿음의 도래

양상 - 인간적 신뢰가 빠진 신용이 확대

결과 - 성장률 저하, 경제 위기 초래

주체는 마찬가지로 사람입니다. 굳이 더 특정하자면 ‘근대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대 이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글에서 주체는 그리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근대에는 근대 이전과 달리 새로운 배경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적 믿음’입니다.

“근대에 만들어진 새로운 자본주의적 믿음은 더 이상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신뢰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런 자본주의적 믿음을 배경으로, 인간 관계에 바탕을 둔 신뢰 없이 신용이 생성됩니다.

“인간적 신뢰가 빠진 신용이 점차 확대되어 성장률을 낮추고 심지어 경제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인간적 신뢰가 빠진 신용이 확대 되었다는 근대 이후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양상 항목에는 ‘인간적 신뢰가 빠진 신용이 확대’라고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성장률 저하’와 ‘경제 위기 초래’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존재하지 않아 보입니다. 촉진할만한 요소인 자본주의적 믿음(은행과 금융 기관에 의해 구현되는)은 배경 항목에 정리가 되었고, 근대 이후의 새로운 신뢰와 신용의 관계를 방해할만한 요소는 굳이 잡자면 ‘인간 관계’인데, 이미 근대 이전에서 신나게 정리했고,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시문 (가)의 정리 독해를 마치시면 됩니다.

근대 이전과 근대를 나누지 않고 함께 적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정리한 내용들이 복잡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본인이 편리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 – 신용과 신뢰 사이의 관계 (근대 이전)

주체 – 근대 이전의 사람들

배경 –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없음

양상 – 신뢰가 없어서 신용 거래도 일어나지 않음

결과 – 경제의 정체

영향 요소 – 정체 → 신뢰 X → 신용 X → 정체… 의 순환

제시문 (나)는 앞에서 성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신용과 신뢰의 관계를 찾아내야 하는 제시문에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후술할 ‘신용과 신뢰의 관계’에서 성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혹은 생각해볼만한) 대목입니다.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읽으신 뒤에 (나)에서의 근대 이전을 먼저 살펴봅시다. 역시나 주체는 근대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나)에 나타난 신용과 신뢰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글에서 ‘신뢰’와 ‘신용’이 어떤 뜻을 가지는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가 거의 없었던 이유는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성장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경제가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근대 이전에는 신용 거래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성장을 믿지 않은 배경은 경제 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리하기 이전에 앞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두번째 문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근대 이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성장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다. 왕자, 성직자, 농부 모두 인간의 생산은 일정하고, 부자가 되는 길은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들의 손자들도 더 나은 생활수준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근대 이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성장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다.”라는 부분이 뒤에 나올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과 연결됩니다. 이는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말로 다시 한번 변형되어 등장합니다. 이 제시문은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사례로 던져주는 것은 아쉬웠는지 막판에 와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용거래가 거의 없었던 이유는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성장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경제가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신용과 신뢰의 관계’는 ‘신뢰가 신용 거래를 만든다’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의 신뢰는 (가)의 ‘인간 관계에서의 신뢰’와는 다른, ‘성장에 대한 신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배경을 ‘성장에 대한 신뢰 결여’라고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양상은 ‘신뢰가 없어서 신용 거래도 거의 일어나지 않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는 ‘경제 정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향을 줄만한 요소는 제시문 전체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신용 거래가 있지 않았다. 신용 거래가 없으니 경제가 정체되었다. 경제가 정체되어서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신뢰와 신용 거래, 경제 정체의 순환이 일어난다고 적을 수 있습니다.

(나) – 신용과 신뢰의 관계 (근대)

주체 – 근대의 사람들

배경 – 미래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 시스템 등장

양상 – 성장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신용 거래 활성화

결과 – 경제의 성장

영향 요소 – 신뢰 → 신용 → 경제 성장 → 신뢰 → 신용…의 순환

근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체는 근대의 사람들이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 보았던 (나)의 근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근대에 이르러 은행—그리고 경제 전체—을 살아남게 하고 꽃피게 만드는 것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신뢰다. 오로지 이 신뢰가 세계의 돈 대부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신뢰가 세계의 돈을 뒷받침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신뢰는 ‘성장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하지만, 왜 ‘성장에 대한 신뢰’가 근대 이전엔 없었다가 근대에 갑자기 생겨나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지, 그 배경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중반에 등장합니다.

“미래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한 것이다. 이 시스템 내에서 사람들은 상 상 속의 재화를 신용이라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돈으로 대체하게 하는 데 동의했다.”

근대에 이르러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한 겁니다. 시스템 내의 사람들은 ‘신용’이라는 특별한 돈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미래(정확히는 미래의 성장)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게 됩니다.

글의 마지막에서 이 모든 것을 한 번 더 명료하게 정리해줍니다.

“신뢰는 신용을 창조했고, 신용은 경제를 성장시켰으며, 성장은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더

많은 신용을 향한 길을 열었다.”

새로운 시스템의 도래로 가능해진 ‘성장에 대한 신뢰’는 ‘신용 거래’를 만들어냈고, 결과적으로 경제를 성장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상 항목에는 ‘성장에 대한 신뢰가 신용을 창조’라고 적을 수 있을 것이고, 결과 항목에는 ‘경제 성장’이라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후에도 계속 성장이 신뢰를 강화시키고, 더 많은 신용을 만들어냈다는 말을 보아, 이러한 ‘신뢰 - 신용 생성 - 성장’의 구조가 계속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근대 이전에서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향 요소에 정리 해둡시다. 신뢰와 신용 사이의 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니까요.

●●● 문항 풀이

	(가)	(나)
공통점	신뢰와 신용의 관계	
주장	인간적 신뢰에 기반한 신용	성장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신용
신뢰의 형태	공통된 믿음(종교관)으로 형성되는 인간적 신뢰	미래의 성장에 대한 신뢰
근대 이전	인간적 신뢰를 기반으로 신용 거래가 일어나서 유럽의 경제 성장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에 신용 거래도 존재하지 않아서 경제 정체 + 순환
근대	자본주의적 믿음으로 인해 인간적 신뢰가 없는 신용 거래가 일어나서 성장을 저하, 경제 위기 초래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여 성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신용 거래가 일어나서 경제 성장 + 순환

위에서 독해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표를 작성한다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제시문에 나 타난/제시문을 독해하여 정리해낸 내용만을 사용하면 위와 같은 항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항목들에 대해 하나씩 설명하자면, 제시문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신용과 신뢰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주장은 다릅니다.

(가)는 인간적 신뢰에 기반한 신용을 주장하지만, (나)는 성장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신용을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신뢰의 형태도 제시문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의 신뢰는 공통된 믿음으로 형성되는 인간 관계에 대한 신뢰라면, (나)의 신뢰는 미래의 성장에 대한 신뢰입니다.

논제에서 근대와 근대 이전으로 나누어 비교하라고 하였으니, 각각의 항목을 근대 이전과 근대로 나누 어서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근대 이전의 (가)에서는 인간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신용 거래 덕분에 시장

과 부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대 이전의 (나)에서는 성장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 거래도 거의 없었고, 경제가 정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이런 결과가 다시 신뢰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가)에서는 자본주의적 믿음(자본주의적 신뢰)이 도래하게 되어서 인간적 신뢰가 결여된 신용 거래가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성장률을 저하시키고, 경제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나)의 근대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여 신용 거래가 일어나게 되었고, 경제 성장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제 성장이 믿음을 확고히 만들어주기 때문에 순환이 일어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018 연세대학교 인문 변형의 예시답안

제시문 (가), (나)는 신뢰와 신용의 관계에 대해 말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양상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가)는 인간적 신뢰에 기반한 신용 거래를 중시한다. 근대 이전 유럽 사람들은 같은 그리스도교인이라는 공통된 종교적 배경을 통해 인간적 신뢰를 형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용 거래가 일어났기에 유럽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에는 자본주의적 믿음이 인간적 신뢰를 대체하였고, 인간적 신뢰가 없는 신용 거래가 일어났다. 그 결과 성장률이 저하되고 경제 위기가 초래되기도 한다.

반면 (나)는 성장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신용 거래를 중시한다.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에 신용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 결과 (가)의 근대 이전과 달리 경제가 정체되었고, 이런 정체는 다시 성장에 대한 신뢰와 신용 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순환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고, 성장에 대한 신뢰가 가능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신용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가)의 근대와 달리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런 경제 성장은 다시 신뢰를 낳고, 신뢰와 신용의 관계를 순환시켰다는 점에서 (가)와 다르다.